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15일 썸머가든을 개장한다. 올해는 전체 면적 25000㎡의 72%를 벵베나로 조성했다. 벵베나 중에서 추위에 잘 견디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벵베나 품종을 심어 대관령의 낮은 기온에서도 오래 볼 수 있도록 했다. 해바라기, 만수국, 코스모스, 슈퍼호박 등 9종의 다양한 꽃들도 함께 심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운영 기간은 15일부터 꽃이 지는 9월 말까지다.



이슈 | LG화학, 3대 분야 투자 계획 발표

친환경·전지·신약...신성장 동력에 10조 투자

전지소재 6조 투자...세계1위 도약 양극재 연산 6만톤 규모 공장 착공 바이오·신재생 소재 산업에 3조 투자 2030년까지 혁신 신약 2개 보유 목표

LG화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장 분야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간다.

신학철 부회장(CEO)은 14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비즈니스 ▲전지 소재 중심의 e-모빌리티(e-Mobility) ▲글로벌 혁신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신 부회장은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능하는 기준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ESG 기반으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1위 종합 전지 소재 회사 목표

LG화학의 3대 성장 동력 중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양극재, 분리막 등의 전지 소재 부문이다. LG화학은 세계 1위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6조 원을 투자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양극재부터 분리막, 음극 바인더, 방열 접착제, CNT(전기와 열 전도율이 구리 및 다이아몬드와 동일하고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신소재) 등까지 넓힌다.

양극재 사업은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산 6만 톤 규모의 구미공장을 올해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2020년 4만 톤에서 2026년 26만 톤으로 7배가량 늘어난다. 양극재의 재



14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Bio-balanced SAP(고흡수성수지, 흰색)과 양극재(검은색)를 들고 3대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화학

LG화학, ESG 기반 3대 신성장 동력 투자계획

성장 동력	투자 규모	내용
친환경 소재 중심의 Sustainability 비즈니스	3조	Bio-SAP 등 친환경 소재 본격 생산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B4 신재생에너지 산업 소재 사업 육성
전지 소재 중심의 E-Mobility	6조	양극재 Global Top-tier 육성 분리막 사업 신속한 시장 진입 CNT 생산량 '21년 1,700톤에서 3배 이상 확대 양극재, 음극 바인더, 방열접착제 등 연구개발
글로벌 신약	1조	국내 Top 수준 45개 신약 파이프라인 당뇨, 대사, 항암, 면역 등 임상단계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글로벌 임상 개발 & 사업 가속화

료가 되는 메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광산 업체와 조인트벤처(JV) 체결도 준비 중이다.

분리막 사업은 빠른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력과 보유 고객 등 시장성을 모두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M&A와 JV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거점도 조기 구축 예정이다.

특히 2021년 39조 원에서 2026년 100조 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해 양극재, 음극 바인더, 방열 접착제 등의 제품에 선제적으로 R

&D 자원을 집중 투입해 기술을 차별화 하고 시장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성능화하는 전지 소재 시장에 대응해 석유화학 사업분야의 CNT 생산 규모도 2021년 1700톤에서 2025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 비즈니스에 3조 원 투자

바이오소재·재활용(Recycle)·신재생 에너지 산업 소재 등 지속가능성 비즈니스에도 3조 원을 투자한다. LG화학은 바이오 제품과 관련해 세

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 인증인 ISCC Plus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Bio-balanced SAP(자기 무게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물을 흡수하는 고흡수성수지, 주로 위생 용품에 사용) 제품을 이달부터 본격 생산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고객사에게 공급한다.

생분해성 고분자 플라스틱인 PBAT는 빠른 시장 진입과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올해 생산 설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2020년 12조 원에서 2025년 31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에 대응해서는 국내의 원료 업체와 JV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페플라스틱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역량 강화, 화장품 용기의 플라스틱 자원을 100% 선순환시키는 에코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신약 회사로 도약

생명과학사업분부는 2030년까지 혁신 신약을 2개 이상 보유한 글로벌 신약 회사로 도약해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약사업에만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한다.

생명과학사업분부는 그동안 신약 파이프라인을 2019년 34개에서 2021년 현재 45개로 확대하고 R&D 투자와 신약개발에 집중해왔다. 특히 당뇨, 대사, 항암, 면역 4개 전략 질환에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고, 임상 개발 단계에 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도 2021년 11개에서 2025년 17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학철 부회장은 “관련 기술, 고객을 보유한 외부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M&A, JV, 전략적 투자 등만 30건이 넘는다”며 “창사 이래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올 하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KT,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출시 네이버 ‘제페토’에 도전장...MZ세대 겨냥 콘텐츠 운영

SK텔레콤이 새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사진)로 네이버의 ‘제페토’에 도전장을 냈다.

SK텔레콤은 안드로이드로 먼저 선보이고, iOS와 가상현실(VR)기기 오culus 퀘스트로 서비스를 넓혀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소셜VR’과 ‘버추얼 밋업’을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프랜드를 5G시대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프랜드는 아바타의 성별과 헤어스타일은 물론 키와 체형까지 총 800여 종의 코스를 제공한다. 동작을 통해 생각과 표정을 전달하는 감정 표현 모션도 66종을 갖췄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소셜 기능도 강화했다. 프로필 기능으로 같은 메타버스 룸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취미를 확인할 수 있고, 아바타를 팔로우할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대형 컨퍼런스홀과 야외 무대, 루프탑, 학교 대운동장, 모닥불 룸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18종 테마의 가상공간을 마련했으며,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이프랜드 내 메타버스 룸에서 원하는 자료를 문서 및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커뮤니티 이션 환경도 구축했다. 하나의 룸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30명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형 컨퍼런스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MZ세대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포럼 및 강연, 페스티벌, 콘서트, 팬미팅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심야 영화 상영회와 대학생 마케팅 스킴, 명상 힐링, OX 퀴즈 등 체험형 콘텐츠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인플루언서 육성 프로그램 ‘이프루언서’, ‘이프렌즈’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전진수 SK텔레콤 메타버스CO장은 “소규모 친밀모임은 물론 대규모 행사 등 고객들이 이프랜드를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메타버스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현대차, 고성능 세단 ‘아반떼 N’ 첫 공개 제로백 5.3초...엔 통해 횡가속·랩타임 등 분석 제공

국내 최초 고성능 세단인 현대차 ‘아반떼 N’(사진)이 14일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현대차 고성능 N 브랜드 중 벨로스터 N, 코나 N에 이어 세 번째 N 모델로 선보인 아반떼 N은 2.0T 플랫폼엔진에 8단 습식 DCT(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속도 250km/h, 0~100km/h 5.3초로 역대 N 모델 중 가장 빠른 동력 성능을 갖췄다.

터보 부스트압을 높여줘 최대 290마력까지 출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켜주는 N 그린 슈프트(NGS, DCT 전용)도 장착돼 있다. 벨로스터 N 차랑에서는 재활성화 간격이 3분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아반떼 N에서는 40초로 대폭 단축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현대 N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출시해 횡가속도(G-Force), RPM, 출력(토크), 랩타임 등을 기반으로 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드라이빙 스킬을 게임을 즐기듯 쉽고 재미있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반떼 N의 판매가격은 MT 사양 3212만 원, DCT 사양 3399만 원(개별 소비세 3.5% 기준)이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국내 가구업체 1위 한샘, 사모펀드 IMM PE 품으로

조창걸 명예회장 지분 포함 30% 매각 “후계자 없어...비전 갖춘 투자자에” 한샘과 오하임아이엔티 시너지 기대 ↑

국내 가구·인테리어 1위 업체인 한샘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에 팔린다.

한샘은 14일 창업주이자 최대주인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 15.45%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7인 지분 약 30.21%를 IMM PE에 매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IMM PE는 양해각서에 따라 독점적 협상권을 부여받았고 향후 한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면 한샘 대주주는 IMM PE로 바뀌게 된다. 매각 금액은 약 1조3000억~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샘 측은 “조 명예회장이 회사의 비전과 미래가치를 인정하는 전략적 비전을 갖춘 투자자를 찾아왔고, IMM PE를 경영의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샘 사옥. 사진제공 | 한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 판단했다”며 “최종 매매대금과 구체적인 매매 조건은 실사 이후 추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0년 조창걸 창업주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싱크대 등 현대식 부엌가구를 파는 매장으로 시작한 한샘은 50여 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왜 매각하나?

이번 매각은 조 명예회장의 후계자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1939년생으로 올해 82세인 조 명예회장은 슬하에 1남 3녀를 뒀다. 장남은 사망했고 손자는 아직 10대다. 3녀는 한샘 지분을 각각 1.3%, 0.9%, 0.7%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1994년부터 최양하 전 회장과 강승수 현 회장 등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샘 측은 “조 명예회장이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회사의 가치를 계승 및 발전시킬 전략적 비전을 갖춘 투자자에 매각함으로써 기업 경영권의 상속 및 승계 문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를 매각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콕족(집에 콕 박혀 있다는 뜻)’이 늘면서 홈퍼니싱(집 꾸미기)과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샘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2조 673억7100만 원으로 3년 만에 2조 원대를 회복했다. 영업이익은 66.7% 늘어난 929억 73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개선과 함께 한샘의 몸값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

매각 이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IMM PE가 가구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신흥 강자로 꼽히는 오하임아이엔티의 대주주인 만큼,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인 한샘의 온라인 채널 강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이날 코스피에서 한샘은 전일 대비 2만9000원(24.68%) 뚝 14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만 9000원까지 뛰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